

‘MZ 소리꾼’ 김수인, ‘동초제 춘향가’ 완창 도전한다

18일 광주예술의전당 ...국립창극단원 ‘춘향’·‘리어’ 등 무대
“전통 지키며 젊은 세대들 흥미 느낄수 있는 공연 만들고 싶어”

“뿌리가 단단해야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악계의 라이징 스타 김수인. 무대마다 팬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커피차와 생일 카페가 이어지는 풍경은 신예 소리꾼의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MZ 소리꾼’, ‘힙한 소리꾼’으로 불리는 그가 오는 18일 오후 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판소리 ‘동초제 춘향가’ 완창 무대에 오른다. 8시간에 달하는 대장정은 젊은 소리꾼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대다.

소리꾼으로서 큰 도전을 앞둔 김수인(30)은 어떤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을까. 광주일보가 그에게 도전에 담긴 이야기와 소리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김수인은 광주시 무형유산 제1호 동초제 흥보가 보유자 김선이 명창의 아들이다. 태고 때부터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다섯 살 무렵 정식으로 배움을 시작했다. 2013년 임방울국악제 학생부 장원을 수상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지만, 한때는 무용과 가야금에 더 마음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다 스승 한승석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소리의 매력을 새롭게 깨닫고 소리꾼의 길을 확고히 했다.

그 과정은 단순한 가업의 계승이 아니었다. ‘명창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담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답했다.

“어머니가 계셨기에 더 예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력에 대한 압박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지금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2020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그는 ‘춘향’, ‘리어’, ‘베니스의 상인들’, ‘이날치전’ 등 주요 무대에 섰다. 김준수, 유태평양 등 오랜 시간 무대를 지켜온 선배들의 존재는 든든한 자원이 됐다.

“창극단에 들어와 가장 크게 배운 건 예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입단 전보다 훨씬 진지하게 예술을 바라보고 탐구하게 됐어요. 선배들을 보면서 자연스

레 자세가 달라졌죠. 녹슬면 안 된다는 긴장감 속에서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JTBC ‘팬텀싱어4’에 출연해 크로스오버 그룹 ‘크레줄’로 활동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팬텀싱어를 하면서 여러 장르의 가수들과 부딪히며 화음과 앙상블을 익혔고, 판소리의 감정을 다른 음악에도 자연스럽게 녹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전통을 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뿌리를 지키는 게 결국 예술가의 품격이라고요.” 김수인이 이번에 선택한 ‘동초제 춘향가’는 고(故) 김연수 명창이 정정렬제 바탕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극적 짜임새가 치밀해 창극 대본으로도 활용될 만큼 완성도가 높고 대목이 많아 완창에는 높은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하다.

“가장 어렵고 긴 바탕을 짤 때 해내야 다른 완창에도 자신감이 붙을 것 같아요. 신성하고 신선한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공연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논대목뿐 아니라 평소 잘 모르지 않는 대목들도 함께 선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수인이 특히 공을 들인 대목은 ‘박석고개’다. 어사또가 된 이도령이 남원으로 향하며 고개에 올라 지난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보통 남성 소리꾼들이 ‘어사출도’ 대목처럼 당당하고 웅장한 소리로 힘을 드러낸다면 ‘박석고개’는 한결 섬세하고 서정적인 결을 지닌다. 그는 “이 대목은 늘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한 폭의 산수화를 그리듯 정서를 세밀하게 담아내야 하는 곡이라 관객들이 그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주면 좋겠어요”라고 전했다.

반대로 ‘어사출도’와 ‘이별가’ 등 오랜 시간 다듬어진 장면에서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완창은 논대목과 낯선 대목을 모두 아우르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학습과 노력을 그대로 보여줄



소리꾼 김수인

수 있는 자리예요. 관객이 그 과정 자체를 느껴주길 바랍니다.” 완창 공연 이후의 목표를 묻자 김수인은 잠시 웃으며 ‘가야금’을 꺼냈다. “판소리 완창에 이어 언젠가는 가야금 산조나 병창 완창에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가야금을 단순한 부전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예술 축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어 “전통 형식을 지키면서도 젊은 세대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고 덧붙였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길을만 들어가는 젊은 국악인 김수인. 그의 소리는 여전히 도전의 한가운데에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진도개.

〈국가유산청 제공〉



단양 고수동굴.

〈국가유산청 제공〉

스탬프 찍으며 즐기는 ‘자연유산 투어’

국가유산청, 진도개 테마파크등 4곳 방문 인증 기념품 제공

진도의 진도개는 충직함과 뛰어난 귀소본능으로 잘 알려진 토종견이다. 세대를 이어 지역 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우리 생활문화와 정서를 비추는 상징이 됐다. 진도개를 포함한 전국의 대표 자연유산을 직접 찾아 도장을 찍는 체험형 여행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 올해의 자연유산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국민이 자연유산을 직접 만나 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과 게임기업 데브시스터즈가 함께하는 ‘자연유산 원정대 캠페인’의 일환이다. 지난해 50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자연유산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과도 연결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이번에 선정된 네 곳은 서로 다른 가치와 이야기를 품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까이에 존재해왔다.

보은 속리 정이품송은 600년 세월을 버티며 왕이 지나가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전설을 품은 소나무다. 단양 고수동굴은 수억 년이 빚어낸 석회암의 지하 세계로 중요석과 석순이 태고의 시간을 보여준다. 제주 정방폭포는 폭포수가 곧장 바다로 떨어지는 국내 유일의

해안폭포로 장관과 더불어 오래된 전설을 간직한 명승이다.

스탬프투어 참가자는 진도개 테마파크, 정이품송 공원, 고수동굴 전시관, 정방폭포 안내소에서 책자(스탬프북)를 받아 방문할 때마다 도장을 찍는다. 책자에는 자연유산뿐 아니라 지역 대표 관광지도 함께 실려 있어, 여행객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꾸러졌다.

네 곳의 도장을 모두 모아 대전 유성구 천연기념물센터를 찾으면 기념품이 제공된다.

스탬프 4개 이상을 인증하면 기본 기념품으로 ‘자연유산 큐브’가 지급되고(선착순 1000명), 이 가운데 200명은 한정판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한정판은 ‘쿠기런 피크닉매트’, ‘조선왕실등 만들기 키트’, ‘서수상 인형 키링’, ‘클리오 아이팔레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수량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참여를 통해 ‘올해의 자연유산’을 선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이어가면서, 자연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긴 추석 연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가족 단위 관람객들 발길

‘포용’ 투영된 체험형 작품 인기
11월2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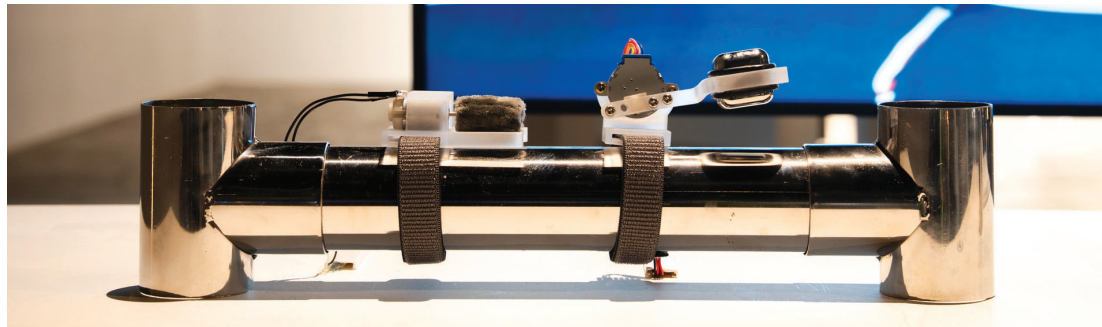
긴 추석 연휴 동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체험형 작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주제인 ‘포용’과 연관된 작품들은 타인의 상황을 미적 디자인을 통해 경험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감&감: 어둠을 마주하다’는 타인의 상황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등 감각을 매개로 듣고 느끼는 방식을 경험한다. 다양한 물건을 토대로 시각, 촉각을 느끼는 한편 냄새를 통해서도 다른 감각과의 관계 등을 탐색할 수 있다. 관람객들이 어두운 상황에서 쓴 체험 후기는 타자와의 공감을 연계한다.

청취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촉각을 매개로 감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작품도 있다.

‘피부로 듣는 공포: 공포영화 속 긴장-해소 흐름 전달을 위한 청각 장애인 대상 햅틱/촉각 프로젝트’(에이에스씨랩·ASC Lab)가 그것. 이번 작품은 촉각을 통해 긴장과 해소의 감정을 전달하는 이색적인 장치다.

일례로 공포영화를 접하면 관람객은 순간 긴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은 섬세하게 들을



‘피부로 듣는 공포 공포영화 속 긴장-해소 흐름 전달을 위한 청각 장애인 대상 햅틱촉각 프로젝트’(ASC Lab).

수 없기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에서 선보이는 손목 밴드를 착용하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들도 공포영화를 볼 때 느끼는 긴장을 움직임, 압력 등 4개 촉각 언어로 감지할 수 있다. 소리가 없는 세계에서 미디어가 전파하는 스토리와 감정선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때문이다.

참여 투어프로그램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포용’과 ‘도시와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기관, 5·18사적 11호(구)광주직접사범병원과 23호 구 국군광주병원, 26호 505보안부대예터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오전 9시30분 비엔날레 광장 셔틀버스 대기)

연구자들도 동행해 도시의 기억이 어떻게 예술적 맥락과 연계되고 상호 공존이 가능한지 등을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오는 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 참조.)

윤범모 대표 이사는 “‘포용’을 모티브로 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그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한 체험형 작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전시장을 찾아 현대적 감각의 포용 정신이 투영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1월 2일까지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65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니, 세계에 한글 아름다움 알린다

한글날 맞아 한글 글꼴 ‘젠 세리프’ 출시 무료 배포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한글날을 맞아 소속사와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글꼴을 공개했다.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9일 신규 한글 글꼴 ‘젠 세리프’(ZEN SERIF·사진)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젠 세리프’는 서양의 전통 서체인 블랙테타와 한글을 결합한 글꼴로, 딱딱한 인상을 덜어내고 유연한 곡선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글꼴은 OA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 내 숏폼 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 ‘에디트’(Edits)에서도 ‘젠 세리프’를 사용할 수 있다. ‘에디트’에 한글 글꼴이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OA엔터테인먼트는 “‘젠 세리프’는 세계에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출시한 글꼴”이라며 “제니는 앞서 첫 정규앨범 수록곡 ‘서



울 시티’(Seoul City)로 한국의 맛을 알리는 등 한국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자부심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since 1982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